

##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

채은하\*

### 1. 들어가는 말

세 종류의 한글 공인 성경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1998, 1999, 2001년)에 개정 출판되었고(대한성서공회), 지금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것들을 공식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개정본들은 현대인에 맞는 한국어 어법과 용어들을 사용해서 원문에 충실하고 독자들에게 더 정확하고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대한성서공회는 개정의 의도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 가톨릭교회는 2005년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말 완역 신구약 합본 『성경』을 단독으로 내었다. 지금까지 한국 가톨릭교회는 개신교회와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과 『공동개정』을 사용해 왔었는데, 이제 성경전서 완역본 『성경』을 독자적으로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최근 15년 사이에 한글로 개정/번역된 공인 성경을 무려 4개나 갖게 되었다. 나아가 대한성서공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 성서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글성경을 착수했다고 한다.

번역 성경은 단순히 성경 원문(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의 의미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번역된 언어를 통해 그 시대의 총체적 정신을 담은 언어와 사상까지 전해준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는 ‘복지’를 국책으로 삼고 전 국민의 복지에 인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 노력에 발맞춰 한국 사회<sup>1)</sup>의 장애인 복지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들이 대거 등장하는 신약성경의 4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장애인 용

\* 한일장신대학교, 구약학.

1) 한국 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지구촌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s Rights)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분야의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이래 1955년 ILO의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 1971년 UN의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세계농아연맹의 농아인의 권리선언, ILO의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에 관한 결의, 1976년 UN의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1980년 세계장애인의 행동 계획 결의 등이 있어 왔다. 남연희, 설진화, 이기량, 『장애인복지론』(고양시: 공동체, 2009), 44.

어들을 살피는 일은 장애인에 대한 한국교회의 태도와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기피/차별 용어를 대폭 수정한<sup>2)</sup> 최근 개정된 한글성경들과 특히 가톨릭교회 단독의 『성경』은 장애인에 대한 비속어들이나 부적절한 호칭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대한성서공회가 개정하고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3개의 한글 공인 성경들과 천주교회의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을 살피고 이 시대에 맞는 대안적 장애인 호칭들을 찾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은 4개의 복음서(마태복음~요한복음)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요 장애인 용어들(UBS 헬라어 성경<sup>3)</sup>과 1998년 이후 개정된 세 개의 한글 공인 성경들과 『성경』을 선택하고, 1990년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sup>4)</sup>에 따라 그 대안적 호칭들을 제안하는데 있다. 장애인 용어들이 담긴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그 호칭 번역은 이 시대의 정신과 요구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헬라어 성경과 한글 공인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경 가운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유독 장애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장애인과 환자들의 치유에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헬라어 성경(UBS)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호칭들과 최근에 개정된 한글 공인 성경(『개역개정』(1998), 『공동개정』(1999), 『새번역』(2001)과 가톨릭교회의 『성경』(2005)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호칭들을 비교, 대조하고자 한다.<sup>5)</sup>

이것을 위해 복음서와 사도행전<sup>6)</sup>에서 선택한 장애인 호칭들은 모두 6개의

2) 전무용, “성경번역과 장애인 관련 용어”, 『성서한국』 35 (1999), 27-29.

3) UBS는 다음의 헬라어 성경의 약자이다: B. Aland, K. Aland, J. Karavidopoulos, C. M. Martini & B. M. Metzger, eds.,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3).

4) 정부는 1980년 이후부터 장애인 조사를 제도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1985년부터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를 장애인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서울: 양서원, 1997), 56-57.

5) 최초의 한글신약성경 『예수성교전서』(1887), 『개역』(1938, 1952, 1961), 『공동번역』(1977)과 『표준새번역』(1993)에 나타난 장애인 호칭들은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성경원문연구』 30 [2012], 140-160)을 참고하라.

6) 본 연구는 장애인이 다수 등장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만 제한하고, 히브리어 성경(70인역 포함)과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한글 번역을 위한 장애인 호칭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헬라어들이다: *χωλός*, *κυλλός*, *ἀνάπειρος*, *κωφός*, *ἄλαλος*, *τυφλός*이다. 이들 가운데 처음 세 용어들(*χωλός*, *κυλλός*, *ἀνάπειρος*)은 주로 지체장애인들에게, 네 번째 용어(*κωφός*)는 언어 장애(혹은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섯 번째(*ἄλαλος*)는 청각장애인에게, 그리고 마지막 헬라어(*τυφλός*)는 시각장애인에게 붙여진 일반적 호칭들이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은 이 같은 헬라어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때로는 헬라어의 뜻이나 문맥의 상관없이 번역되어 있다. 무엇보다 거의 모든 한글 개정 성경들은 최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제정한 한국 장애인 복지법의 표준 용어들을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장애인들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들이 각각 한글 공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고, 이 용어들이 어떻게 번역되어야 할 것인지 그 대안적 호칭을 제안하고자 한다.

## 2.1. *χωλός*의 번역 문제

*χωλός*는 마태복음 11:5; 15:30, 31; 21:14; 마가복음 9:45; 누가복음 7:22; 14:13, 21; 요한복음 5:3과 사도행전 3:2; 8:7; 14:8에서 발견되고 있다.<sup>7)</sup> 이 단어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서로 다른 두 호칭, 즉 ‘못 걷는 사람’(마 11:5; 15:30; 눅 7:22; 행 3:2; 8:7; 14:8)과 ‘저는 사람’(마 15:30; 21:14; 막 9:45; 눅 14:13, 21; 요 5:3)으로 번역하고 있다. *χωλός*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 특히 다리(혹은 발)나 손이 기형이거나 기능적으로 마비되거나 손실된 경우, 때로는 단순한 상처를 입은 사람도 가리킨다.<sup>8)</sup> 사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신체적 장애를 가졌는지 분명하지 않다. *χωλός*가 『개역개정』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사지(四肢)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예 못 걷는 사람인지 아니면 약간 저는 정도의 경증 장애를 가진 사람인지 헬라어로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럴 경우 이 단어가 나온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45의 본문을 예로 들 수 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χωλός*)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볼 때 여기에서 ‘다리 저는 자’로 번역된 *χωλός*는 단순히

7)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서 12:3에서만 이 단어가 나타난다.

8) W. Bauer, W. Arndt and F.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이후 GELNT)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457, 889.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발이 절단된 지체장애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개역개정』 번역자는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를 걷는 일이 약간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하여 ‘다리 저는 자’로 이해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없는 ‘지체장애인’(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다시 『개역개정』 마태복음 11:5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로 번역되어 있다. 이 절에서 헬라어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를 ‘못 걷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같은 번역은 누가복음 7:22와 사도행전 3:2; 8:7; 14:8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 구절들에서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를 ‘못 걷는 사람’으로 번역한 것은 아마도 전후 문맥상 걷지 못하던 지체장애인이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사도행전 14:8에서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은 전후 문맥상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을 종합하건대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는 혼자 보행하기 어려운 다리(혹은 발)의 마비나 절단 때문에 혼자서는 걷기 어렵기 때문에 지팡이나 그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런 종류의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호칭은 못 걷는 사람 혹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체장애인’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에서 장애의 정도를 표시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지체장애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사실 신약성경은 장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장애인의 치료와 치유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헬라어 단어 역시 달리 구별하거나 명확하게 장애 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에 대하여 사전적 의미로나 문맥상 전혀 다른 의미를 전해주는 번역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마태복음 15:30, 31; 21:14와 마가복음 9:45와 누가복음 14:13, 21과 요한복음 5:3에서 발견되는데, 이 헬라어를 (다리) ‘저는 사람’으로 번역한 것이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과 장애인( $\kappa\upsilon\lambda\lambda\acute{o}\varsigma$ )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 $\kappa\upsilon\lambda\lambda\acute{o}\varsigma$ )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마 15:30-31; 막 9:45; 눅 14:13, 21; 요 5:3).

위의 구절들에서 보듯이 같은 헬라어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가 같은 성경 안에서(『개역개정』) ‘다리 저는 사람’으로 번역된 것이다. 이 단어와 함께 ‘장애인’이라고 번역한  $\kappa\upsilon\lambda\lambda\acute{o}\varsigma$ 는 같은 구절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나란히 나열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만으로 이 사람이 저는 정도의 장애인인지 아니면 아예 못 걷는 장애인인지 분명하지 않다.  $\kappa\upsilon\lambda\lambda\acute{o}\varsigma$ 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다루겠지만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불과 4곳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며, 주로 절단된 지체장애인을 가리키는 반면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는 지체가 마비되어서 손이나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된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를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라 ‘지체장애인’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를 ‘다리 저는 사람’으로 번역한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헬라어가 다리 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못 걷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장애의 외형적 모습으로 장애인을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에 대하여 『새번역』의 번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번역』은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를 ‘다리 저는 사람’<sup>9)</sup>, ‘지체장애인’(자)<sup>10)</sup>로 번역하고 있는데 같은 헬라어에 대하여 이렇게 달리 번역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공동개정』은 이 헬라어를 훨씬 다양하고 비속어적인 용어들로 번역하고 있다: ‘불구자’(혹은 불구의 몸)<sup>11)</sup>, ‘절름발이’<sup>12)</sup>, ‘곰배팔이’<sup>13)</sup>. 이처럼 『공동개정』은 지체장애인에 대하여 -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 여전히 비속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맥과는 크게 상관없이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다리 저는 이’(마 11:5; 눅 7:22; 14:13, 21; 요 5:3), ‘불구자’(마 15:30, 31; 행 3:2; 8:7), ‘절름거리는 이’(마 21:14; 막 9:45),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행 14:8)으로 번역하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1999년에 나온 『공동개정』과 2005년의 『성경』을 비교해 보면 최근의 『성경』이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에 대하여 그나마 장애인에 대하여 완곡한 표현들을

9) 마 11:5; 눅 7:22; 14:13; 요 5:3; 행 3:2.

10) 마 15:31; 행 8:7; 14:8. 1990년 이후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결함으로 상지, 하지 및 척추에 마비, 절단, 관절운동 제한 또는 변형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운동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57.

11) 마 12:13; 눅 14:13, 21; 행 8:7; 14:8. 이요한에 따르면 1920-1930년대에 한국의 신문 잡지에서 불구자(不具者)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지칭하던 일반적인 용어였다고 한다. 시각, 청각, 언어 그리고 지체장애인, 성불구자, 정신불구자까지도 불구자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다. 그런데 『공동개정』은 1999년에 새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구자’라는 용어를 1977년에 번역된 『공동』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요한, “1920-1930년대 일제의 장애인 정책과 특징”,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2009), 4.

12) 마 11:5; 15:30; 21:14; 막 9:45; 눅 7:22; 14:13, 21; 요 5:3; 행 3:2; 8:7 등 다수 나타남.

13) 마 15:30, 31.

상대적으로 더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것들 역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호칭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헬라어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가 실제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단어는 질병이 아니라 발이나 다리에 마비나 결손이 있는 지체장애인에게 통용되는 일반적 용어이다.<sup>14)</sup> 헬라어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는 다리(혹은 발) 혹은 팔의 마비(혹은 절단)가 있을 경우 장애 부위나 정도에 관계없이 지체장애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볼 때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는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있든 없든 아니면 다리나 발(혹은 팔)의 절단이나 마비이든 혹은 경미하게 저는 정도의 절단 장애가 있든 일반적으로 다리나 발 혹은 팔의 장애가 있는 모든 장애인을 가리키고 있기에 ‘지체장애인’<sup>15)</sup>이라고 호칭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본문의 전후 문맥상 특이한 사항이나 조건이 발견되지 않는 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는 ‘지체장애인’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2.2. $\kappa\upsilon\lambda\lambda\acute{o}\varsigma$ 의 번역문제

단지 4곳(마 15:30, 31; 18:8[=막 9:43])에서만 발견되는  $\kappa\upsilon\lambda\lambda\acute{o}\varsigma$ 는 『개역개정』에서 모두 ‘장애인’으로 번역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이 단어는 한 곳(막 9:43)을 제외하고는 모두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와 함께 발견된다는 점이다.

먼저 이 단어가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와 함께 사용된 마태복음의 본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15:30-31에서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와  $\kappa\upsilon\lambda\lambda\acute{o}\varsigma$ 가 나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 전자는 ‘다리 저는 사람’, 후자는 ‘장애인’으로 번역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kappa\upsilon\lambda\lambda\acute{o}\varsigma$ 가 마태복음 18:8에서는 다리나 손이 절단된 사람을, 마가복음 9:43에서는 손이 절단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kappa\upsilon\lambda\lambda\acute{o}\varsigma$ 를 단순히 ‘장애인’으로 번역하고 있다. 실제로  $\kappa\upsilon\lambda\lambda\acute{o}\varsigma$ 는 위의 본문에서 보았듯이 사전적 의미로는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와 비슷하지만 주로 절단된 지체를 가진 ‘지체장애인’을 가리키는 듯하다. 어쨌거나  $\chi\omega\lambda\acute{o}\varsigma$ 와  $\kappa\upsilon\lambda\lambda\acute{o}\varsigma$ 는 모두, 사지의 마비나 절단으로 인해 걷는 일 혹은 손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다양한 형태의 지체장애인을 말하고 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란 사지(四肢)에 관련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든 정신이든 어떤

14) H. Balz and G. Schneider,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T* (이후 EDNT) 3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0), 490-491.

15) 1990년 이후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결함으로 상지, 하지 및 척추에 마비, 절단, 관절운동 제한 또는 변형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운동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57.

형태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총체적인 호칭이므로 *κυλλός*를 그냥 장애인으로 번역하는 것은 *κυλλός*에 대한 사전적 이해도 부족하고 장애인<sup>16)</sup>이란 용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새번역』에서는 *κυλλός*에 대하여 ‘지체를 잃은 사람’(마 15:30), ‘지체장애인’(마 15:31)과 ‘한 손(발)이 없는 사람’(마 18:8; 막 9:43)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문의 전후 문맥에 따라 이렇게 차이를 둔 것 같다. 한편 *κυλλός*를 마태복음 18:8과 마가복음 9:43에서는 한 손이나 한 발을 잃은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문맥상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새번역』의 이 번역은 모든 공인 번역 성경들 가운데서 전후 문맥에 따라 번역한 유일한 경우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지체장애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방해 보인다.

한편 *κυλλός*에 대하여 『공동개정』은 ‘곰배팔이’(마 15:30), ‘걸지 못하는 사람’(막 15:31)과 ‘불구의 몸’(마 18:8; 막 9:43)으로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마가복음 15:31에서 이 단어를 ‘걸지 못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예 걸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지 본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손이나 발이 절단되어서 걸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단지 저는 정도의 약간 불편한 지체장애인일 수도 있는데, 『공동개정』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예 ‘걸지 못하는 사람’으로 단정 짓고 있다. 마태복음 15:30에서 *κυλλός*에 대한 ‘곰배팔’이란 용어는 사전적으로 ‘굽거나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팔’<sup>17)</sup>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이 호칭은 비속어로서 일상적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성경』은 ‘불구자’(마 15:30, 31; 18:8; 막 9:43)로 통일시켜 번역하고 있다. 이렇듯 『공동개정』과 『성경』에서 발견되는 *κυλλός*에 대한 이런 번역들은 자제해야 할 용어들이다.

분명한 것은 *κυλλός*에 대한 본문의 용례들을 볼 때 - 비록 4군데 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 이 단어는 *χωλός*와는 별도로 주로 손이나 다리(혹은 발)가 절단된 경우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마비이든 절단이든 현재의 공식적인 장애인 복지법의 호칭을 적용한다면 이들은 모두 지체장애인이다. 마태복음 18:8이나 마가복음 9:43의 경우처럼 절단의 경우를 강조해야 하는 본문이라면 손 혹은 다리가 절단된 지체장애인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

16) 오늘날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障)라는 표현이 공식화되었는데, 이 장애라는 표현은 영어의 disability를, 일본에서 사용하는 장애인(障者)라는 한자 표기를 참고해 다시 옮긴 것이다. 이후 1990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현재는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이요한, “1920-1930년대 일제의 장애인 정책과 특징”, 9.

17) 박용수, “곰배팔”, 『새우리말 갈래사전』(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4.

체장애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난하다. UBS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하여 *κυλλός*보다는 *χωλός*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sup>18)</sup> *κυλλός*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χωλός*와 함께 쓰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신약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에 두 개의 헬라어를 합쳐서 모두 다양한 형태의 지체장애인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3. *ἀνάπειρος*의 번역 문제

*ἀνάπειρος*는 단지 누가복음 14:13, 21에서만 2회 발견되는 드문 용어이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ἀνάπειρος*)과 ‘저는 자’(*χωλός*)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두 절은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된 본문인데 *ἀνάπειρος*이 *χωλός*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 단어는 『개역개정』에서 두 곳 모두 ‘몸 불편한 자’로 번역하고 있다. 사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그 불편한 부위나 상태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단지 일시적인 불편함인지 영구적인 장애를 가리키는지 본문만으로 확실하지 않다. 헬라어 사전<sup>19)</sup>에 따르면 이 단어는 지체가 상실되었거나 마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의미상 *χωλός*와 다르지 않지만 상태가 심각한 경우를 지목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χωλός*와 함께 사용된 것은 둘 모두 합쳐서 사지 내지는 다양한 형태의 지체장애인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직역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ἀνάπειρος*과 *χωλός*를 합쳐서 ‘경증 혹은 중증 지체장애인’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새번역』은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같은 번역이 *ἀνάπειρος*의 의미를 잘 전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어법으로도 거리낌이 없다. 하지만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된 *χωλός*를 각각 ‘저는 사람’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이 둘의 한글 번역은 단지 다른 표현일 뿐 내용적으로는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ἀνάπειρος*와 *χωλός*는 밑에서 다루게 될 *τυφλός*(시각장애인)와 같은 장애인은 구약시대와 예수 시대에 유대 공동체(특히 쿨란 공동체)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난 장애를 가진 만큼 가장 배타적으로 무시되었던 구성원이었던 점<sup>20)</sup>을 고려해 볼 때 이 둘은 눈으로 확연히 알 수 있는 아마도

18) 대표적인 헬라어 신학사전인 키텔 사전(G. Kittel & G. Friedrich, *TDNT 1-10*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6-1978])조차 이 글에서 선택한 6개의 헬라어의 뜻이나 용례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역시 주요 주석들도 이런 용어들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19) *GELNT*, 59.

20) 레 21:17-23; 1QM 7:4; 1QSa 2:5-6; 4QDb; 참조, 삼하 5:8(LXX).



중증 지체장애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들을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다. 한편 『공동개정』은 ‘불구자’로, 『성경』은 ‘장애인’으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역시 여기에서 번역한 ‘불구자나 장애인’ 모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번역도 아니고 적절한 호칭도 아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누가복음 14:13, 21에서 이 단어는 경중이든 중중이든 사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가난한 자들과 ‘지체장애인’ 모두와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

#### 2.4. κωφός의 번역 문제

κωφός는 마태복음 9:32, 33; 11:5; 12:22(x2); 15:30, 31; 마가복음 7:32, 37; 9:25와 누가복음 1:22; 7:22; 11:14에서 발견되는데, 보통 언어장애인을 뜻하지만 때로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된다.<sup>21)</sup> 그러므로 이 헬라어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서 언어장애인인지 청각장애인인지 구분해서 번역해야 할 것이다. 『개역개정』은 이 헬라어에 대하여 ‘말 못하는 사람’(마 9:32, 33; 12:22(x2); 15:30, 31; 눅 1:22; 11:14), ‘못 듣는 사람’(마 11:5; 막 7:37)과 ‘귀 먹은 사람’(막 7:32; 9:25; 눅 7:22)으로 번역하고 있다. 『새번역』 역시 『개역개정』과 비슷하게 ‘말 못하는 사람’(마 9:32, 33; 12:22(x2); 15:30, 31; 눅 1:22; 11:14), ‘듣지 못하는 사람’(마 11:5; 15:30; 막 7:37; 9:25)과 ‘귀 먹은 사람’(막 7:32)으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공동개정』은 ‘병어리’(마 9:32, 33; 11:5; 12:22; 눅 1:22; 11:14), ‘귀 먹은 사람’(막 7:32)와 ‘귀머거리’(막 9:25; 눅 7:22)로 번역하고 있다. 이 같은 용어들은 비속어로 간주되어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공동개정』에서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2005년 출간된 『성경』에서도 역시 이 헬라어에 대하여 각각 ‘말 못하는 사람’(마 9:32, 33; 12:22(x2); 15:30; 막 7:37; 눅 11:14), ‘귀 먹은 이’(마 11:5; 눅 7:22, ), ‘말 더듬는 이’(막 7:32)와 ‘병어리’(막 9:25와 눅 11:14<sup>22)</sup>; 눅 1:22)로 번역되어 있다. 『성경』에서는 『공동개정』에서 사용되던 ‘병어리’라는 횡수가 줄고 대신 ‘말 못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κωφός가 언어와 청각 장애 모두를 가리키는 만큼 본문 안에서 언어 장애인인지 청각장애인인지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각 한글 공인 성경은 이 부분을 본문의 전후 문맥에 따라 잘 구분 짓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

21) GELNT, 462; EDNT 2, 333.

22) 이 번역은 사람이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붙여짐.

을 가리키는 용어들은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의 표준 어법에 따른 호칭들이 아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에서 ‘언어장애인’이란 호칭을 사용해야 할 부분은 마태복음 9:32, 33; 15:30, 31; 마가복음 12:22; 누가복음 1:22; 11:14이고, ‘청각장애인’이란 호칭은 마태복음 11:5; 마가복음 7:32, 37; 9:25와 누가복음 7:22이다. 마태복음 9:32에 나타난 이 단어의 번역을 비교해 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들이 …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κωφός)을 예수께 데려오니  
(『개역개정』, 『새번역』, 『성경』)

그들이 … 사람들이 마귀 들린 ‘병어리 한 사람’(κωφός)을 예수께 데려왔다(『공동개정』).

즉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중략) …귀신 들려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κωφός)을 예수께 데려오니’

## 2.5. ἄλαλος의 번역 문제

언어 장애를 가졌다는 뜻<sup>23)</sup>을 지닌 ἄλαλος는 신약성경에서 단지 마가복음에서만 3회 발견될 뿐이다(막 7:37; 9:17, 25). 이 단어는 『개역개정』에서 모두 ‘말 못하는 사람’으로, 『새번역』은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 ‘말 못하는 사람’(7:37)으로 그러나 귀신에게 사용되었을 때 ‘말 못하게 하는’(막 9:17)과 ‘병어리’(막 9:25)로 번역하고 있다. 『공동개정』은 오히려 『새번역』과는 반대로 사람에게는 ‘병어리’(막 7:37)로, 악령에게는 ‘말 못하게 하는’(막 9:17, 25)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처럼 이 단어는 말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람과 귀신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ἄλαλος가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경우 ‘언어장애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 귀신이나 다른 경우 ‘말을 못하게 하는’ 혹은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헬라어 성경에서 언어 장애에 대하여 ἄλαλος보다 κωφός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 언어 장애만을 가리키고, 후자는 언어와 청각장애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기존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막 7:37):

‘못 듣는 사람’(κωφός)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ἄλαλος)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개역개정』, 『새번역』)

23) “ἄλαλος”, EDNT 1.

“... ‘귀머거리’(κωφός)를 듣게 하시고 ‘병어리’(ἄλαλος)도 ...”(『공동개정』)

“... ‘귀먹은 이’(κωφός)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ἄλαλος)들은 말하게...”(『성경』).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사람들이 ... (중략) ... ‘청각장애인’(κωφός)도 듣게 하고 ‘언어장애인’(ἄλαλος)도 말하게 한다.”

## 2.6. τυφλός의 번역문제

τυφλός는 시각장애인을 호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헬라어이다.<sup>24)</sup> 시각장애인은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장애인으로서 마태복음 9:27, 28; 11:5; 12:22; 15:14(x3), 30, 31; 20:30; 21:14; 23:16, 17, 19, 24, 26; 마가복음 8:22, 23; 10:46, 49, 51; 누가복음 4:18; 6:39(x2); 7:21, 22; 14:13, 21; 18:35; 요한복음 5:3; 9:1, 2, 13, 17, 18, 19, 20, 24, 25, 32, 39, 40, 41; 10:21, 11:37과 사도행전 13:11(참고. 롬 2:19; 벧후 1:9; 계 3:17)에 나타나고 있다. 이 용어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주로 ‘맹인’<sup>25)</sup>과 ‘눈이 먼 사람’<sup>26)</sup>으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새번역』은 ‘눈먼 사람’<sup>27)</sup>과 ‘못 보는 사람’<sup>28)</sup>으로, 『공동개정』은 ‘소경’<sup>29)</sup>, ‘눈먼 이’(사람)<sup>30)</sup> 혹은 ‘(앞) 못 보는 사람’<sup>31)</sup>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처럼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98년, 1999년과 2001년에 개정된 한글 공인 성경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중성적이고 공식적인 호칭으로 번역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성경』에서는 τυφλός를 ‘눈먼 이(사람)’<sup>32)</sup>로 통일

24) 신약성경에서 무려 50회 발견되는데 그 가운데 복음서에서만 46회 가량 발견된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모두 예수의 치유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 외에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적 병폐를 비유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EDNT 3, 377-378.

25) 『개역개정』 전체에 ‘소경’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주로 ‘맹인’(복음서와 사도행전: 마 11:5; 9:27-28; 15:14, 30, 31; 20:30; 21:14; 23:17, 19, 24; 막 8:22, 23; 10:46, 49, 51; 눅 6:39(x2); 7:21, 22; 14:13, 21; 18:35; 요 5:3; 9:1, 2, 13, 17, 18, 19, 20, 24, 25, 32, 39, 40, 41; 10:21; 11:37; 행 13:11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26) 마 12:22; 23:16, 26; 눅 4:18.

27) 마 9:27; 11:5, 8; 12:22; 15:14, 30, 31; 20:30; 21:14; 23:16, 17, 19, 24, 26; 막 8:22, 23; 10:46, 49, 51; 눅 4:18; 6:39(x2); 7:21, 22; 14:13, 21; 18:35; 요 5:3; 9:1(눈먼 소경), 2, 13, 17, 18, 19, 20, 24, 25, 32, 40, 41; 10:21; 11:37; 행 13:11.

28) 요 9:39.

29) 마 9:27-28; 15:14, 30, 31; 20:30; 21:14; 23:16, 17, 19, 24, 26; 막 8:22, 23; 10:49, 50; 눅 6:39(x2); 7:21, 22; 14:13, 21; 18:35; 요 5:3; 9:1, 2, 13, 18, 24, 32; 10:21; 11:37 등 모두 51회 나타나고 있다; 례 19:14; 21:8; 욥 29:15.

30) 마 11:5; 12:22; 15:14; 23:16, 17, 19, 24, 26; 눅 4:18; 7:21; 요 9:1, 17, 19, 20, 40, 41; 행 13:11.

31) 막 10:46; 요 9:25, 39.

시켜 번역하고 있다. 『공동개정』에서 ‘소경’이라는 호칭이 자주 사용된 것과 비교할 때 『성경』은 τυφλός에 대하여 ‘눈먼 이(사람)’로 주로 번역하고 소경이나 맹인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sup>33)</sup>은 그나마 완곡한 표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포함하여 세 개의 공인 개정 본들 모두 τυφλός를 시각장애인이라는 호칭보다는 아직도 ‘소경’, ‘못 보는 사람’ 혹은 ‘맹인’으로 번역하고 있다.<sup>34)</sup> 이것의 대안으로 마태복음 11:5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자 한다:

“맹인(τυφλός)이 보며 못 걷는 사람(χωλός)이 걸으며 … 못 듣는 자(κωφοί)가 들으며…”(『개역개정』)

“눈 먼 사람(τυφλός)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χωλός)이 걸으며, … 듣지 못하는 사람(κωφοί)이 들으며 … 복음을 듣는다.”(『새번역』)

“소경(τυφλός)이 보고 절름발이(χωλός)가 제대로 걸으며 … 귀머거리(κωφοί)가 들으며 … 복음이 전하여진다.”(『공동번역』)

“눈먼 이(τυφλός)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χωλός)들이 제대로 걸으며 … 귀먹은 이들(κωφοί)이 들으며 … 복음을 듣는다.”(『성경』)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τυφλός)이 보며 지체장애인(χωλός)이 걸으며… 청각장애인(κωφοί)이 들으며 … 복음을 듣는다.”

### 3. 결론 및 나가는 말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6개의 헬라어들과 그것에 대한 4개의 한글 공인 성경들의 번역 비교와 대안적 번역들<sup>35)</sup>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32) 마 9:27, 28; 11:5; 12:22; 15:14, 30, 31; 20:30; 21:14; 23:16, 17, 19, 24, 26; 막 8:22, 23; 10:46, 51; 눅 4:18; 6:39(×2); 7:21, 22; 14:13, 21; 18:35; 요 5:3; 9:1, 2, 13, 17, 18, 19, 20, 24, 25, 32, 39, 40, 41; 10:21; 11:37; 행 13:11.

33) 마 9:27, 28; 11:5 외 다수.

34)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비유로 사용될 때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주로 적용되고 있다(사 43:8; 59:10).

35) 정부는 1980년 이후부터 장애인 조사를 제도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1985년부터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를 장애인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백서』, 56-57.

UBS	개역개정 (1998)	공동개정 (1999)	새번역 (2001)	성경 (2005)	대안적 번역
χολός <sup>36)</sup>	못 걷는 사람 <sup>37)</sup> (다리) 저는 사람 <sup>38)</sup>	불구자 <sup>39)</sup> / 절름발이 <sup>40)</sup> / 절뚝발이 <sup>41)</sup> / 곰배팔이 <sup>42)</sup>	다리 저는 사람 <sup>43)</sup> / 지체장애인 (자) <sup>44)</sup>	불구자 <sup>45)</sup> / 다리 저는 이 <sup>46)</sup> / 절름발이 <sup>47)</sup> / 절름거리는 이 <sup>48)</sup> / 얇은뱅이 <sup>49)</sup>	지체장애인 50)
κωλός <sup>51)</sup>	장애인 <sup>52)</sup>	곰배팔이 <sup>53)</sup> / 걸지 못하는 사람 <sup>54)</sup> / 불구의 몸 <sup>55)</sup>	지체장애인 56)/ 걸지 못하는 사람 <sup>57)</sup> / 한 손(발)을 잃은 사람 <sup>58)</sup>	불구자 <sup>59)</sup>	지체장애인
ἀνάπειρος <sup>60)</sup>	몸 불편한 자 <sup>61)</sup>	불구자 <sup>62)</sup>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sup>63)</sup>	장애인 <sup>64)</sup>	지체장애인
κωφός <sup>65)</sup>	말 못하는 사람 <sup>66)</sup> / 못 듣는 사람 <sup>67)</sup> / 귀 먹은 사람 <sup>68)</sup>	병어리 <sup>69)</sup> / 귀 먹은 사람 <sup>70)</sup> / 귀머 거리 <sup>71)</sup>	말 못하는 사람 <sup>72)</sup> / 듣지 못하는 사람 <sup>73)</sup> / 귀 먹은 사람 <sup>74)</sup>	병어리 <sup>75)</sup> / 말 못하는 사람 <sup>76)</sup> / 귀 먹은 사람 <sup>77)</sup>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ἄλωος <sup>78)</sup>	말 못하는 사람 <sup>79)</sup>	병어리 <sup>80)</sup> / 말 못하는 사람 <sup>81)</sup>	병어리 <sup>82)</sup> / 말 못하는 사람 <sup>83)</sup>	병어리 <sup>84)</sup> / 말 못하는 이 <sup>85)</sup>	언어장애인
τυφλός <sup>86)</sup>	맹인 <sup>87)</sup> / 눈이 먼 사람 <sup>88)</sup>	소경 <sup>89)</sup> / 눈먼 이(사람) <sup>90)</sup> / (앞) 못 보는 사람 <sup>91)</sup>	눈먼 사람 <sup>92)</sup> / 못 보는 사람 <sup>93)</sup>	눈먼 이(사람)	시각장애인

36) 마 11:5; 15:30, 31; 21:14; 막 9:45; 눅 7:22; 14:13, 21; 요 5:3; 행 3:2; 8:7; 14:8; 참조. 히 12:13.  
 37) 마 11:5; 15:30; 눅 7:22; 행 3:2, 8:7; 14:8.  
 38) 마 15:30; 21:14; 막 9:45; 눅 14:13, 21; 요 5:3.  
 39) 마 12:13; 눅 14:13, 21; 행 4:9, 10, 14; 8:7; 14:8. 이요한에 따르면 1920-30년대에 한국의 신  
 문 잡지에서 불구자(不具者)라는 용어는 모든 형태의 장애인을 지칭하던 일반적 용어였다

고 한다. 시각, 청각, 언어 그리고 지체장애인, 성불구자, 정신불구자를 모두 ‘불구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용어는 더 이상 중성적인 의미가 아닌 비속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1999년에 새로 개정된 『공동개정』과 『성경』은 여전히 ‘불구자’라는 용어를 여전히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이요한, “1920-1930년대 일제의 장애인 정책과 특징”, 4.

- 40) 마 11:5; 15:30; 21:14; 막 9:45; 눅 7:22; 14:13, 21; 요 5:3; 행 3:2; 8:7 등 다수 나타난다.
- 41) 욥 29:15.
- 42) 마 15:30, 31.
- 43) 마 11:5; 18:8; 눅 7:22; 14:13; 요 5:3; 행 3:2.
- 44) 마 15:31; 행 8:7; 14:8. 1990년 이후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결함으로 상지, 하지 및 척추에 마비, 절단, 관절운동 제한 또는 변형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운동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57.
- 45) 행 3:2; 8:7.
- 46) 마 11:5; 15:30, 31; 눅 7:22; 14:13, 21; 요 5:3.
- 47) 마 18:8; 막 9:45
- 48) 마 21:14; 참조, 히 12:13.
- 49) 행 14:8.
- 50) χαλός, κυλλός, ἀνάπειρος를 모두 지체장애인으로 통일하는 것은 한글 번역이라는 점에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세 개의 헬라어들이 각각 다른 용어들인데 모두 ‘지체장애인’으로 번역하는 것은 각 헬라어의 고유한 의미와 뉘앙스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 글이 참고하고 있는 헬라어 사전들(TDNT, EDNT, GELNT)이 이 헬라어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고 있기에 이 세 단어들의 정확한 번역과 의미를 담은 정확한 번역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글은 장애인의 시각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장애인들에 대하여 현재 한국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가장 적절한 장애인 호칭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이 부분이 본 글의 한계이자 차후 성경 번역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 51) 마 15:30, 31; 18:8; 막 9:43.
- 52) 마 15:30; 18:8; 막 9:43.
- 53) 마 15:30.
- 54) 마 15:31.
- 55) 막 9:43.
- 56) 마 15:31.
- 57) 마 15:30.
- 58) 마 18:8; 막 9:43.
- 59) 마 15:30, 31; 18:8; 막 9:43.
- 60) 눅 14:13, 21.
- 61) 눅 14:13, 21.
- 62) 눅 14:13, 21.
- 63) 눅 14:13, 21.
- 64) 눅 14:13, 21.
- 65) 마 9:32, 33; 11:5; 12:22(×2); 15:30; 막 7:32, 37; 9:25; 눅 1:22; 7:22; 11:14.
- 66) 마 9:32, 33; 12:22(×2); 15:30; 눅 1:22; 11:14.
- 67) 마 11:5; 막 7:37.
- 68) 막 7:32; 9:25; 눅 7:22.
- 69) 마 9:32, 33; 11:5; 12:22; 눅 1:22; 11:14.
- 70) 막 7:32.

위에서 보았듯이 이 글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장애인을 가리키는 6개의 헬라이어들(χωλός, κωλός, ἀνάπειρος, κωφός, ἄλαλος, τυφλός)과 이들을 최근에 번역한 세 개의 한글 공인 개정본과 『성경』을 서로 대조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대안적 장애인 호칭들을 제안하는 데 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헬라이어만으로 장애의 정확한 상태나 종류를 찾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이어 성경(UBS)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일관성 있게 장애인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한글 공인(개정) 성경들에서 발견되는 장애인 호칭들은 여전히 비속어들이나 부적절한 표현들이 발견되고 있기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사실 1990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호칭들이 통일되었다고 하지만 이것들은 한국 사회의 일상생활이나 서적에서는 아직도 낯설다. 지금까지 오

---

71) 막 9:25; 눅 7:22.

72) 마 9:32, 33; 12:22(×2); 15:30; 막 7:37; 눅 1:22; 11:14.

73) 마 11:5; 막 7:37; 9:25.

74) 막 7:32.

75) 눅 1:22.

76) 마 9:32, 33; 12:22; 15:30, 31; 막 7:37; 눅 11:14.

77) 마 11:5; 막 7:32; 9:25; 눅 7:22.

78) 막 7:37; 9:17, 25.

79) 막 7:37; 9:17, 25.

80) 막 7:37.

81) 막 9:17, 25.

82) 막 9:25.

83) 막 7:37; 9:17.

84) 막 9:17, 25.

85) 막 7:37.

86) 마 9:27, 28; 11:5; 12:22; 15:14(×3), 30, 31; 20:30; 21:14; 23:16, 17, 19, 24, 26; 막 8:22, 23; 10:46, 49, 51; 눅 4:18; 6:39(×2); 7:21, 22; 14:13, 21; 18:35; 요 5:3; 9:1, 2, 13, 17, 18, 19, 20, 24, 25, 32, 39, 40, 41; 10:21; 11:37; 행 13:11; 참조. 롬 2:19; 벧후 1:9; 계 3:17.

87) 『개역개정』 전체에서 ‘소경’이란 호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맹인’(복음서와 사도행전: 마 11:5; 9:27-28; 15:14, 30, 31; 20:30; 21:14; 23:17, 19, 24; 막 8:22, 23; 10:46, 49, 51; 눅 6:39(×2); 7:21, 22; 14:13, 21; 18:35; 요 5:3; 9:1, 2, 13, 17, 18, 19, 20, 24, 25, 32, 39, 40, 41; 10:21; 11:37; 행 13:11 등)이란 호칭이 63회 나타나고 있다.

88) 마 12:22; 23:16, 26; 눅 4:18.

89) 마 9:27-28; 15:14, 30, 31; 20:30; 21:14; 23:16, 17, 19, 24, 26; 막 8:22, 23; 10:49, 50; 눅 6:39(×2); 7:21, 22; 14:13, 21; 18:35; 요 5:3; 9:1, 2, 13, 18, 24, 32; 10:21; 11:37 등 모두 51회 나타나고 있다. 참조, 레 19:14; 21:8; 욥 29:15.

90) 마 11:5; 12:22; 15:14; 23:16, 17, 19, 24, 26; 눅 4:18; 7:21; 요 9:1, 17, 19, 20, 40, 41; 행 13:11.

91) 막 10:46; 요 9:25; 9:39.

92) 마 9:27; 11:5, 8; 12:22; 15:14, 30, 31; 20:30; 21:14; 23:16, 17, 19, 24, 26; 막 8:22, 23; 10:46, 49, 51; 눅 4:18; 6:39(×2); 7:21, 22; 14:13, 21; 18:35; 요 5:3; 9:1(눈먼 소경), 2, 13, 17, 18, 19, 20, 24, 25, 32, 40, 41; 10:21; 11:37; 행 13:11.

93) 요 9:39.

랫동안 사용되었던 호칭들이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고 있는 다수의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호칭이나 용어 때문에 적지 않게 상처를 받는다. 과거에 자주 사용하던 많은 장애인 호칭들은 현재 비속어이거나 장애의 유무 없이 남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때 여전히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성경에서 중립적이고 비차별적인 장애인 호칭들의 사용은 중요하다. 영어권에서도 장애인 호칭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이를테면 장애인을 대체로 ‘people with disability’(PWD)로 부르고 있는데, 한때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능력이 다른 사람’(differently abled people, DAP)으로 호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에 대하여 DAP 대신 PWD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물리적 한계로 받아야지 거기에 어떤 능력이나 해석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장애우(障礙友)’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기도 하지만 장애인은 모두 친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신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한 선도적 기능과 역할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속어의 사용이나 편견과 무시가 담긴 호칭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한글 번역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용어들과 그에 준한 공식적인 장애인 호칭들을 염두에 두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리고 정신장애인을 전체 장애인의 공식적인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현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이런 호칭들 역시 미래에 또 바뀌어야 할 용어일 수 있다. 하지만 언어와 정신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역시 그에 따라 성경 번역이 계속되어야 한다면 장애인 호칭의 변화 역시 함께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주요어>(Keywords)

장애인 호칭, 한글 공인 성경,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people with disability (PWD), the Korean Revised versions, a physically challenged person, a speech-impaired person, a hearing-impaired person, a visual impaired person.

(투고 일자: 2013년 1월 29일, 심사 일자: 2014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3월 8일)



<참고문헌> (References)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남연희, 설지화, 이기량, 『장애인복지론』, 고양시: 공동체, 2009.

박용수, ‘곰배팔’, 『새우리말 갈래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이요한, “1920-1930년대 일제의 장애인 정책과 특징”,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전무용, “성경 번역과 장애인 관련 용어”, 『성서한국』 45 (1999), 27-29.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공인번역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  
경원문연구』 30 (2012), 서울: 대한성서공회, 140-160.

한국재활재단 편,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서울: 양서원, 1997.

B. Aland, K. Aland, J. Karavidopoulos, C. M. Martini & B. M. Metzger, eds.,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3.

H. Balz and G. Schneider,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T(EDNT) 1-4*,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0.

W. Bauer, W. Arndt and F.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GELNT)*,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Abstract>

**Survey of Terms Referring to People with Disabilities(PWD) in  
Korean Bible Versions and Their Alternatives:  
Centering on the Gospels and Acts**

Prof. Unha Chai  
(Hanil Uni. & Theological Seminary)

A lot of people with disabilities(PWD) often appear in the four Gospels and Acts in the NT. It is because Jesus did concentrate on curing and healing them in his early ministry. Jesus met them in their setting of life, cured and healed them, and had them return to their normal lives. They are usually represented as six Greek terms like *χωλός*, *κυλλός*, *ἀνάπειρος*, *κωφός*, *ἄλαλος*, and *τυφλός* in the UBS Greek New Testament<sup>94</sup>).

As much as the Korean church is growing mature, newly revised Korean versions are continually being published and are widely and commonly being used in her. They are as follows: “New Korean Revised Version” transliterated as “Gae-yeok-gae-jung” in 1998, “Revised Common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in 1999, and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in 2001. In addition,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produced its own Bible “Seong-kyung” recognized by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in 2005. This means that there were three newly revised Korean versions, and a brand new Korean translation during the last 15 years.

This essay compares six Greek term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ppearing in the Greek NT and their translations in various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mentioned above, and seeks to find out their alternatives. The problem of their titles in Korean versions is not simple at all. It is noticeable and significant that they are being changed from very negative, underestimated and mistreated meaning to more neutral and sound designations than the older Korean versions of the Bible. However, it is pointed out in this essay that there is still more to be done. Thus it is alternatively proposed in this paper that the terms especially in the four Gospels and Acts in the NT, be revised to ‘a physically challenged

---

94) B. Aland, K. Aland, J. Karavidopoulos, C. M. Martini & B. M. Metzger, eds.,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3.

person'(지체장애인), 'a speech-impaired person'(언어장애인), 'a hearing-impaired person'(청각장애인) and 'a visual impaired person'(시각장애인) according to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became effective from 1990. The language of the Bible has the power and can greatly influence Bible readers because it is God's Word. Therefore terms or titl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need to be revised into words with sound and neutral meaning and nuance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times. Care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so that translations are neutral and non-prejudiced in themselves at any case. This essay is aimed at it.